

Deloitte Newsletter

2014년 4월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회계부정 부추기는 '쥐꼬리 감사보수'

회계부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법정에서 일을 근절하려면 비현실적인 회계 감사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턱없이 낮은 감사보수가 회계법인이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인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감사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 위 기업의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영업이익 증가 폭과 회계 감사보수 증가 폭을 비교한 결과 영업이익은 2.5 배가량 증가한 반면 감사보수는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개정 회계감사기준 시행 유의사항 안내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시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회계감사 결과까지 책임지도록한 개정회계감사기준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계감사업무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새 감사기준에 따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하는게 허용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 전체에대한 감사책임을 지게됩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해 필요시 감사절차에 관여하는 등 개정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EF가 구조조정 만병통치약? 정부 M&A 활성화 대책 '속 빈 강정'

정부가 직접 나서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첩병으로 사모펀드(PEF)를 내세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간부문 활성화를 돕겠다는 정부의 '선의'(善意)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실체는 '구조조정 활성화'로 평가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PEF에 대한 정책라인의 '기대'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PEF를 아예 '만병통치약' 또는 '해결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확대될 경우 앞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어려운 곳이면 어디든 'PEF를 조성해서 투자한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또한 벌써부터 공기업 구조조정도 PEF가 활용될 것이라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 "올 상장사 30곳 무작위 선정해 회계감리"

금융감독원은 '2013 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내놓고 지난해 발표한 4 대 회계이슈와 관련해 상장업체 가운데 20 개사, 분식회계징후 관련 10 개사를 무작위표본추출방법 등으로 선정해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감사품질관리를 위해 상반기 5 개사, 하반기 5 개사 등 총 10 개사의 회계법인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3~4 주간 현장감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회계오류가 높을 것으로 파악되는 4 대 회계이슈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잘 처리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품질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개선권고사항 등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계법인 빅 4’ 10 대 그룹 회계감사 ‘독과점’ 갈수록 심화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 개 회계법인의 시장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상위 10 개 재벌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장기간 독식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장 독과점을 막을 대안으로 감사인 의무 교체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회계법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M&A 리그테이블] 회계법인 실사 실적 줄어...클로징 지연땀

회계법인들의 M&A '실사'(Due Diligence)자문 실적이 예년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많지만 실사를 거쳐 거래종결(Closing)까지 이뤄낸 사례가 적거나 또는 종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14 년 1 분기 M&A 회계자문 딜리스트와 리그테이블을 집계한 결과, 올 들어 새로 인수자를 찾아낸 거래(발표기준)에서는 건수기준으로 삼일이, 금액 기준으로 딜로이트 안진이 1 위를 차지했습니다. 잔금납입이 완료된 거래(완료기준)에서는 EY 한영이 삼성에버랜드 빌딩사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사업, 안연케어 등의 실사를 맡으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M&A 재무자문-⑥>CS, 경영권이전 1 위...외국계 '강세'

올해 1 분기 인수·합병(M&A) 시장은 지독한 딜 가뭄이 지속된 가운데 크레디트스위스(CS)와 JP 모간 등 외국계 자문사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1 일 발표한 '2014 년 1 분기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재무자문(인포맥스 화면 8460) 완료기준(Completed) 실적에서 경영권 이전 거래 부문에서는 CS 가 1 위에 올랐고 그 외 거래에서는 JP 모간이 수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언스트앤영 역시 삼성디스플레이가 코닝의 지분을 인수하는 딜을 공동 자문하면서 2 위 자리를 따냈고, 딜로이트 안진은 청진동 빌딩을 코람코자산신탁에 매각하는 자문을 맡아 3 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켓인사이트] “에너지공기업 자산 매각딜 잡아라” 빅 4 회계법인 경쟁치열

에너지공기업들의 자산 매각과 관련, '빅 4(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들이 자문 및 컨설팅을 따내기 위한 열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강도높은 부채감축 계획으로 에너지공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앞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최대 자문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법인 가운데 가장 먼저 에너지와 부동산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TF 를 구성해, 공기업 민영화에 대응하고 있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공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필요한 매각자문을 비롯해 회계 실사, 세무, 컨설팅 자문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삼정 KPMG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산업법 담당 파트너 회계사가 구성된 상태여서, 에너지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EY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에너지 공기업 관련 TF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ATCA 전문' 美 회계법인 CKP, 국내 진출

7 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CKP 는 FATCA 관련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계법인으로 이달 말 법인 등록을 목표로 국세청 및 금융위원회 등에 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CKP 는 미국 내 한인 회계법인으로는 처음으로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의 PCAOB(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에 등록되었고, PwC, 딜로이트, 언스트앤영, KPMG 등 소위 '4 대 회계법인(Big Four)'을 제외하고는 국제조세, 인수·합병(M&A)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계 미국 회계법인으로 알려졌습니다. CKP 는 현재 인가 과정 중 허용된 법적 범위 안에서 은행, 보험회사 등의 VIP 자산관리 조직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같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라이빗뱅크(Private Banker·PB)가 자산가 고객을 연결하면 FATCA 의 내용을 설명하고 세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 증권사 독무대 된 대형 M&A 시장

대형 인수합병(M&A)이나 굵직한 공기업의 자산 매각 중개를 외국 증권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 이후 인수가격 5000 억원 이상인 '메가딜' 10 건 중 국내 증권사가 중개에 참여한 것은 두 건뿐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IB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IB 조직 및 인력 축소→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에서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JP 모간 한국법인의 임석정 대표는 20 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국내 대표 증권사의 IB 부문 대표 중에선 3 년을 넘긴 사람이 없다"며 "전문인력마저 줄어들고 있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 층~12 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